

일 정

14:00 - 14:20 개회식

- 국민의례
 - 귀빈소개
 - 개 회 사 : 김영일 ((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이사장)
 - 축 사 : 박선영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
-

14:20 - 14:30 영 상

- 동영상 : 탈북자들의 남한매체 접촉 증언 영상
-

14:30 - 15:30 발 제

- 사 회 :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중앙대 교수
 - 제1발제 :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김정수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 연구센터장)
강동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2발제 : 북한에 유입되는 한류의 과거와 현재 진단
주성하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제3발제 : 정보의 자유와 북한판 한류열풍
김태훈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15:30 - 15:40 Tea Time 티 타임

15:40 - 16:40 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자 :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손광주 (데일리NK 국장, 편집인)
안승우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운영위원)
-

16:40 - 17:00 폐회 및 기념촬영

목 차

개회사	1
김영일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이사장)	
축 사	2
박선영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	
발 제	
■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5
김정수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 연구센터장)	
강동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에 유입되는 한류의 과거와 현재 진단	20
주성하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정보의 자유와 북한판 한류열풍	34
김태훈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토 론	
■ 남한 문화(노래와 영상매체)의 북한 유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47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북한판 한류열풍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	49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 정보유통과 北 시민사회 發芽의 중요성	53
손광주 (데일리NK 국장, 편집인)	
■ 북한판 한류열풍 그 다음은	56
안승우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운영위원)	

개 회 사

김 영 일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류열풍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주요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북한에도 예외 없이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미래는 소프트파워가 지배하는 세상이며 한류는 소프트파워의 대표 주자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남한의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대북라디오, 방송 등이 중국을 경유하여 유입되거나 직접 전파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남한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한류열풍 속에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조명하고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북한판 한류열풍’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에 북한의 변화와 인권개선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뜻을 나누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먼저 북한의 한류열풍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관계자 여러분과 세미나를 위해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발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북한 지역에 남한의 대중문화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 현상이 북한지역으로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예전에는 평양, 신의주, 청진 등 일부 대도시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만 유행하던 우리의 문화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북한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한류열풍이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아전인수격의 분석을 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을 방문해 본 제 경험으로는 고위층들에게만 따랐던 햇볕정책 보다는 수시로 중국을 오가며 서로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소상공인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생존을 위해 물건을 하나 둘 팔다보니 그것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매체들을 접하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통일의 중심에는 기독교의 선교활동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독일 정부 자체가 기독교 단체를 통해 간접지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선교를 통해 통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은 만나 면담을 하다보면,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한 이후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목사님과 신부님, 선교사분들의 손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독일과 다른 점은 우리는 북한 안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지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한류가 단지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자유'의 참 뜻이 전해질 수 있는 귀중한 방안이 함께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이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¹⁾

김정수 |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 연구센터장

강동완 |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본 글은 북한 내에 유통되는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고 기능적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가 외부로부터 어떻게 유입, 확산되는가를 ‘지역간·대인간’ 유통구조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역간·대인간 유통구조의 구분은 남한 영상물이 북한 지역에 유입, 확산되는 시간과 공간의 단계에 따른 구분이다. 즉, 북한 주민이 남한 영상매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국경 유입과정부터 시작하여, 이후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의식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하나의 구조적 틀 안에서 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의식과 행위변화가 향후 북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망한다.

I. 서론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는 심각한 경제난에 의해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던 중앙배급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친지방문이나 밀거래를 위해 국경을 넘는 일이 잦아졌고 북한 내부에서 지역간 이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존의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앙통제 시스템의 붕괴는 또한 자생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식량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장마당에 가지고 나와 거래를 하였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이완되면서 자생적 시장은 북한 전역으로 점차 확대되었고 식량 이외에

1) 본 글은 강동완 외,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변화,” (현대북한연구회 10주년 기념학술회의, 2010.8.24) 발표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생필품을 비롯하여 거래 품목 역시 다양화 되면서 시장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중국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과 시장의 확대과정에서 외부정보와 남한 문화가 급속히 유입·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가 유입되었고, 이를 통해 남한(아랫동네)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었다. 시장의 확대는 정보 확산이라는 파급력을 갖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의 엄격한 정보통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영상매체는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매개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중네트워크로 기능한다면, 만약 이러한 매개체가 사라지거나, 또는 전폭적으로 확대될 경우 인적네트워크 상태는 물론 시스템(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북한 내에 유통되는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고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가 외부로부터 어떻게 유입되고,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지역간·대인간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남한 영상매체 유통의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한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인식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지시하고 주입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확산되어 개인의 의식변화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체제 전체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정보 유입의 구조와 기능 분석은 결국 북한체제라는 하나의 구조적 틀 안에서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변화가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행위와 연계망이 거시적 측면의 북한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II.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 구조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 구조 분석은 남한 영상매체가 북한지역에 어떻게 유입되고 확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는 ‘지역간 유통구조’와 ‘대인간 유통구조’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역간, 대인간 유통구조의 구분은 남한 영상물이 북한 지역에 유입, 확산되는 시간과 공간의 단계에 따른 구분이다. 즉, 북한 주민이 남한 영상매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국경 유입과정부터 시작하여, 이후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I.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 경로: 지역간 유통 구조

그동안 북·중 접경지역, 특히 함경북도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국으로의 왕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과 시청이 많이 이루어 졌다. 이 지역의 경우 일반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남한방송이 수신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나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2000년 이후 국경지역 주민들 다수가 남한 방송을 시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에 당국의 통제 이완과 사회적 일탈²⁾의 증가로 인해 중국으로 오가는 것이 수월해지면서 남한 영상매체가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중 접경지역은 물론 평양,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 내륙(‘안쪽’)을 포함하는 북한 전역에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 텔레비전의 남한 방송 수신 지역도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 CD, DVD, VHS 등을 통한 방법과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되는 경우인데, 본 연구조사에서 확인한 지역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II- 1>과 같다.

<그림 II- 1> 남한 영상매체 시청 지역



2) 이 시기를 ‘일탈의 시대’ 혹은 ‘체제혼란기’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북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권력엘리트의 반역적 움직임마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전현준·김국신·정영태·최수영·김진환,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09.

이같은 조사결과는 응답자가 거주한 지역에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한 경우와, 응답자가 친지방문이나 장사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에서 시청한 사례까지 포함한 결과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청하거나, 남한 영상매체를 다른 지역으로 전달해 준 사례도 많이 있었다. 이는 당국의 통제가 이완된 상황에서 친지방문이나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남한 영상매체 유통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중 장사 및 친지방문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하여 남한 방송을 시청하였거나 영상매체를 전달해 준 경로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남한 영상매체의 지역간 확산 경로



2.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 경로: 대인간 유통 구조

대인간 유통구조는 '시장을 통한 거래'와 '돌려보기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 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시장을 통한 거래는 현재 북한 지역에서 남한 영상매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외부세계와 연결된다. 중국 영화, 남한의 드라마가 문화상품으로 사적 영역

에서 거래되는 대상이다. 이는 북한주민과 외부 세계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³⁾

돌려보기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 형성은 거래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 개인과 개인의 돌려보기를 통해 형성되는 연결망의 형태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정보 유입이 어떻게 확산, 또는 단절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가. 시장을 통한 거래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탈북하기 직전까지 CDR 밀수를 직접 했던 사례8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사례 8이 CDR 밀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약초 밀수와 비교할 때 작은 부피로 인해 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요가 많아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밀수를 통해 들여온 물건은 일명 뒷배경이 있는 간부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직접 생산되는 물건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간부들은 안전하게 뒷배경이 있어서 물건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사례 8의 경우도 도보위부 간부의 아내와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밀수를 하였다. 사례8은 중국으로부터 북한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CDR 1개당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통고로 넘겨주면, 이후 판매는 보위부 간부의 아내가 담당하였다고 한다.

거래는 먼저 도보위부 간부의 아내가 물건 구입을 지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도보위부 간부의 아내의 경우 남한 방송을 직접 시청하면서 남한에서 유행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남한 정세, 환율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한다. 도보위부 간부의 아내가 사례 8에게 제목을 지정하여 구입을 지시하면 사례8은 중국에 있는 중국대방에게 물건을 구입한다. 이 경우 한가지 주목할 점은 밀수꾼은 사례8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국경지방에 있는데, 만약 그 마을에 1,000세대가 산다면 300세대는 장사를 하고, 700 세대는 다 밀수를 한다고 한다. 이들 밀수꾼들은 모두 자신의 연줄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들과 접촉하는 중국 대방(도매상)은 수가 적기 때문에 동일한 중국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하룻밤에 몇 천개의 CDR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밀수는 북·중 국경선을 경계로 '앞선'과 '뒷선'으로 구분된다. 먼저 앞선은 국경을 지키는 경비대들로 1개 소대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을 뇌물로 매수하여 일명 카바꾼으로 연결하고 있다. 밀수꾼은 많은데 중국 대방과 카바꾼은 소수이기 때문에 같은 대방과 같은 카바꾼일 경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며, 카바꾼이 물건을 들어오는 시간을 조정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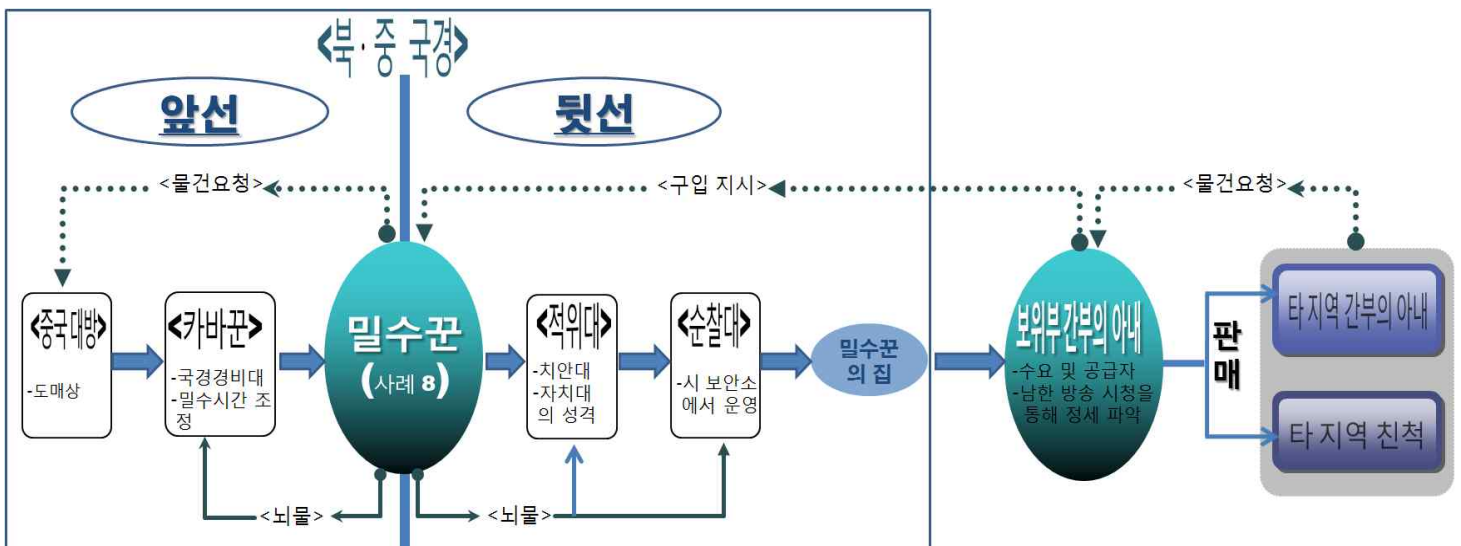
3) 최봉대, 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6), p. 130. 총서 16-2, 93쪽 이하에서 인용.

다음으로 중국 접경을 벗어나 물건을 집까지 가지고 오는 ‘뒷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적위대이다. 일명 치안대로 남한으로 치면 지구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구성된다고 한다. 적위대를 지나면 이후 순찰대를 만나게 되는데 순찰대는 시 보안소에서 운영한다. 사례8은 순찰대에게 짐 한 짝당 2,000원 정도의 뇌물을 주고 본인의 집 근처만 봐달라고 미리 약속을 한다. 이들에게는 평소 주는 뇌물뿐만 아니라 명절 때는 특별히 고급술을 선물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이같이 앞선과 뒷선을 거쳐 사례8의 집까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도 보위부 간부의 아내가 차량을 보내주고 이를 통해 운반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례8은 초소비와 순찰대비 등의 뇌물을 제하면 하룻밤에 약 8-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후 도 보위부 간부의 아내는 사례8로부터 물건을 통째로 넘겨받고, 이를 다른 도 지역이나 평양에 있는 간부의 아내들에게 판매한다. 여기에는 주로 도 보위부 간부 아내의 친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공식적 연결망 자원, 특히 혈연적 연결망자원이 강력할수록 사적 부문의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자산을 증식하여 경제적 상층에 진입하기가 더 쉽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⁴⁾ 주목할 점은 연줄을 통해 절대 해당 지역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다른 도 지역, 특히 평양에 많이 판매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는 일체 하지 않고 검찰과 지도원 비서 아내 등 주로 간부들에게만 물건을 판매한다. 한편, 이상의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북한에서 남한 CDR의 밀수 및 유통 경로



4)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 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p. 71.

나. 둘러보기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 가족, 친지, 이웃과 둘러보기 그리고 네트워크

북한 주민들은 위에서 살펴본 시장에서의 구입과 대여를 통해 입수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한 후 이를 가족, 친지, 동료와 함께 둘러보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전파과정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 적이 있는가, 만약 전해 주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주었는가를 질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1) 외부정보의 단절: '나홀로' 또는 '가족'만 시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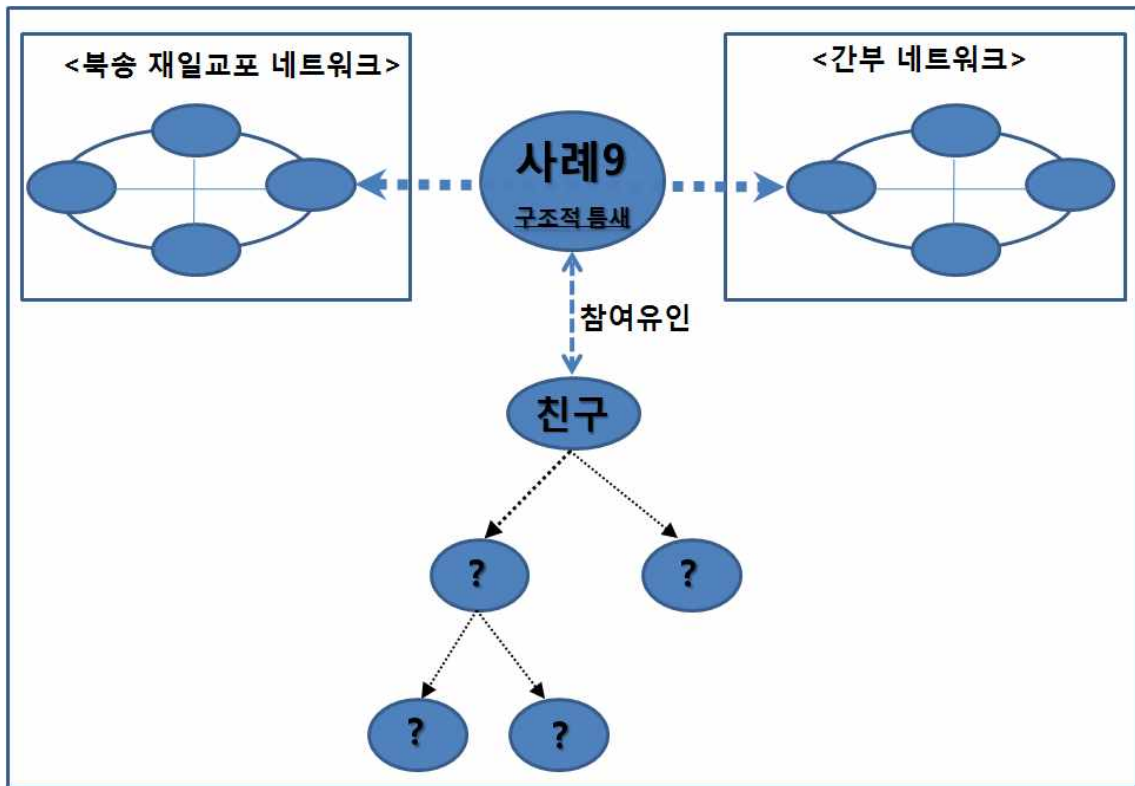
외부정보의 단절은 나홀로 또는 가족만 시청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의 이웃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전하지 않고 혼자만 시청한 경우이다. 무엇보다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할 경우 당국의 가혹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시청 사실을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 갔을 때 CDR을 구해오기는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들만 시청한 후 즉시 불에 태워 폐기해 버리는 경우이다. 또한 친구나 친지로부터 남한 영상매체를 받은 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본인만 보고 폐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나홀로 시청이나 가족끼리 보는 경우로 인해 외부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단절되어 연계망이 형성되지 않는다.

(2) 외부정보의 소극적 확장: 친한 친구, 친척끼리만 서로 둘러본 경우

응답자 가운데 남한 영상매체를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나 주변의 친한 친구·동료들과 서로 둘러보는 사례가 있었다. 남한 영상매체를 둘러본다는 것은 외부정보가 단절되지 않고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령,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 권유하여 함께 시청했는데 함께 본 친구가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여 확산되는 경우이다.

함께 둘러보는 사례 중 주목할 점은 검열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압수한 물건을 자신의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서로 둘러본다는 점이다. 사례 11의 경우 친척이 보안원이었는데 단속을 하여 압수한 영상매체를 서로 둘러보았다고 한다.

<그림 II- 4> 남한 영상매체의 소극적 확장 유형



(3) 외부정보의 적극적 확장: 인민반원이나 주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시청을 유도한 경우

위의 두 사례와 달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청을 유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결속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특별한 중심성 없이 서로가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사례 14의 경우 명절에 서로 음식을 나누는 돈독한 관계인 인민반원 몇 집이 서로 둘러보았는데 어느 한 집이 중심이 된다고보다 남한 영상매체를 서로서로 구입하면 함께 모여서 시청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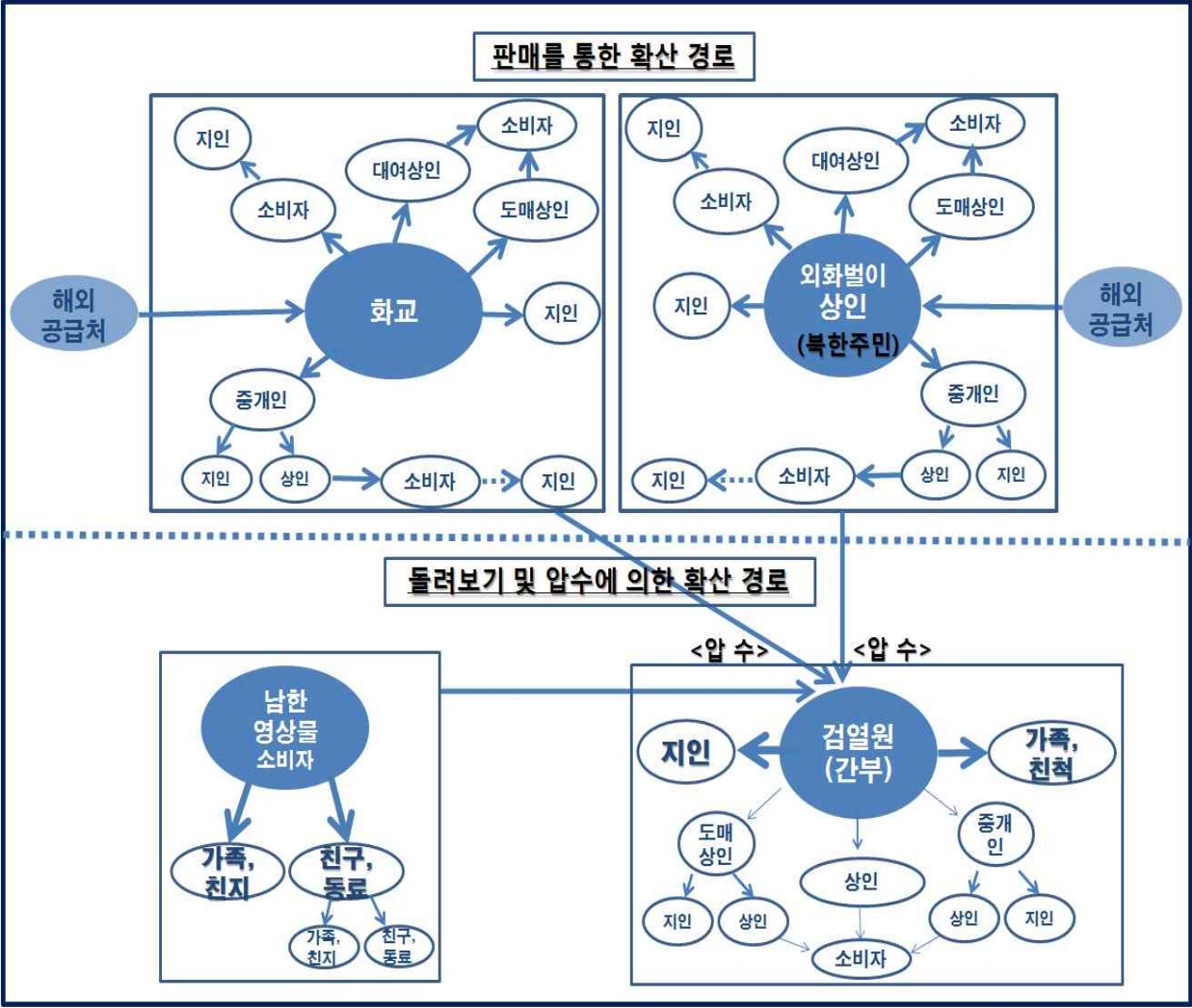
이와 달리 특정한 행위자가 중심이 되어 주변의 이웃들에게 시청을 권유하며 확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한 영상매체를 대여하기 위해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함께 시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역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심적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는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의 가족들이나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규모는 상대적으로 더욱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확장유형 역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태가 나타나기는 하

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상호간 연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네트워크간 단절형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여전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감시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하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간 단절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의 공유가 현 시점에서 왜 대규모의 네트워크로 상호 결속 내지 연계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한 북한에서의 대인간 유통구조 및 확산구조는 거래, 둘러보기, 압수에 의한 둘러보기, 압수물 재판매 등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도식화 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II-6>과 같다.

<그림 II- 6> 북한에서의 남한 영상매체 유통 및 확산 구조



III.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지역 유입 및 확산의 특징

1. 북한사회의 이완-통제와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내부 지역으로의 유통 및 확산은 북한사회의 이완-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장사를 비롯한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역간 이동이 늘어났다. 식량위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 이완은 주민의 자유로운 지역이동을 가능케 했고, 이는 곧 북한 내부에서의 남한 영상매체 유통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요인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비공식적 시장 통제와 더불어 남한 영상매체 유통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는 시기에도 이러한 통제과정이 역설적이게도 영상매체 유통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시장을 통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CD 혹은 DVD가 유통되는 등 외부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북한 당국은 시장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⁵⁾ 이에 조직되고 제한된 시장의 양성적 활용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자본주의 황색바람과 계획경제에 미치는 불건전한 상행위를 강제통제하기에 이르렀다.⁶⁾

주목할 점은 이같은 당국의 통제로 인해 남한 영상매체 유통의 한계가 컸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지만, 오히려 당국의 통제로 인해 호기심의 촉발, 희소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은 남한 영상매체가 확산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통제 과정에서 보위부를 비롯한 간부들이 일반 주민이나 상인들로부터 압수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게 되고, 그 내용에 동화되는 과정 또한 목격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북한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한다. 어떤 경우에는 뇌물을 받고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면, 지인 등의 의리관계가 두텁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한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될 경우, 특히 검열원이 한명일 경우는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돈이 있으면 풀려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당국은 외국 영화나 남한 영상물이 주민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잦은 검열을 하고 있지만, 검열시에는 대부분 인민반장이 이를 미리 알려주어 단속에 대처하도록 하고, 적발시에도 어느 정도는 뇌물을 통해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⁷⁾ 응답자 중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다 본인이 직접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 돈과 고양이 담배⁸⁾

5) 임강택·이석기·이영훈·임을출, 『2008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45.

6) 박희진, “북한 시장의 형성과 체제 내 활용,”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울, 2009), p. 267.

7)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16.

를 주고 풀려났다고 한다. 또한 본인 이외에 주변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돈을 주고 풀려나오는 경우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 지역, 계층간 경계 허물기: 남한 영상매체를 통한 점, 선의 연결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확대됨으로 북한 사회계층이 정치적 경직화에서 경제적 재분화 과정을 겪게 된 것도 남한 영상매체가 확산된 경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성분에 의해 구분된 계층 구조는 그 경직성으로 계층간 대면 기회 또한 주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정치적 계층으로서의 만남이 아닌 판매자와 수요자로서 만나는 '시장'이 계층간 대면 접촉 필요성 및 실제 접촉을 확산시켰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성분을 뛰어 넘는 관계망 재편은 남한 영상매체의 '연결선'으로 작용하여, 전 계층의 공유가 가능한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간 것이다.

일반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남한 정보나 영상매체 입수가 용이한 간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직급은 교양원 양성소 소장, 보위부 소장 및 지도원, 통신과장, 반탐과장, 외사지도원, 인민보안성 간부, 중앙은행 지배인 등이다.

3. 동일 언어 사용 매체에 대한 몰입

북한 내에 유통되는 영상매체는 남한에서 제작된 것 뿐 아니라 중국, 홍콩 등에서 제작된 것이 유통되고 있다. 남한 영상매체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주로 중국이나 홍콩영화를 많이 보았다. 그런데 중국어 번역 자막이 삽입되지 않아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만큼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남한 영상매체의 유입은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해 및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는 이질적 언어 사용 매체에 비해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확산이 추동되는 요인이 되었다. 남한 드라마의 경우 다음편을 기대하게 하는데 마약과도 같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다.

4.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문화적 모방

남한 영상매체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한의 발전된 모습과 개방적인 모습을 환상과 동경을 가지게 되었고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은 먹고 살기조차 힘든데 남한은 먹고

8) 고양이 담배는 북한에서 가장 흔한 뇌물 품목으로 통하는 물건이다. 정식 명칭은 '크레이븐(CRAVEN)'인데 담뱃갑에 고양이 그림이 있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양이 담배로 통한다고 한다.

사는 걱정이 없고,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로 어떤 장면을 보고 남한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 가정방(집), 거리, 자동차, 옷차림새,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 여성의 운전 등을 꼽았다. 특히, 집이나 인테리어를 보면 일반인(서민)이 사는 곳도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밥상을 보면 흰쌀밥에 대야섯 가지 반찬은 항상 기본으로 오르는 것을 보고 남한이 정말 잘 산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사회문화적 의식이 변화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행위양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문화적 모방의 단계로 확대되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련되어 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인기 있는 것이 몸에 짝 붙는 바지, 가슴이 파인 옷, 머리핀, 말투, 헤어스타일 등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남한 영상매체에서 배운 남한 말투를 따라하는데, 소년단 지도원에게 발각된 경우도 있었고, 보안원의 경우 말투를 통해 CDR 유통의 출처를 캐기도 한다는 것이다.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한 응답자들의 의식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 첫째, 남한 영상매체를 접하기 이전에 남한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경우이다. 이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처음 접할 때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가도 두세 번 반복된 시청을 통해 남한 영상매체의 내용에 동화되고 의식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 남한 영상매체를 접하기 이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과 자본주의에 대한 정보를 접했던 사례들은 남한 영상매체에 대한 감정이입과 의식변화가 앞선 사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접촉 유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경우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변화되고 최종적으로는 탈북을 감행하는 촉매제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남한 영상매체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주목할 또 다른 사례로는 남한 영상매체를 통해 남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IV.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과 북한 당국의 대응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 영상매체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옷차림이나 말투 등 문화적 변화가 확산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장마당을 통해 남한 영화나 드라마 CD, DVD가 유통되는 등 외부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북한 당국은 시장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⁹⁾ 무엇보다 북한 당국도 남한이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9) 임강택·이석기·이영훈·임을출, 『2008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45.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남한 영상매체의 시청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당의 통제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단속원의 경우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 주는 경우도 있다.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과, 통제와 이완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부 균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단속 형태: 추방, 노동단련형, 8년형, 12년형, 종신형, 사형

북한 당국은 남한 영상매체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가택수색이나 검열그루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의 경우 탈북을 시도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숙박검열을 하는데 이 때 남한 영상매체 시청이나 소유 등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 드라마나 영화 외에 성인영화를 보다 적발될 경우는 오히려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다고 한다.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면 돈이나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지만 음란물이나 성인영화를 보다가 발각되면 결코 예외가 없다고 한다. 사례9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구역 당 지도원이 중심이 되어 음란물을 보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 뇌물을 주고 무사히 풀려난 사례: ‘돈’, ‘고양이 담배’의 위력

북한 당국은 외국 영화나 남한 영상물이 주민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잦은 검열을 하고 있지만, 검열시에는 대부분 인민반장이 이를 미리 알려주어 단속에 대처하도록 하고 적발시에도 어느 정도는 뇌물을 통해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효과의 그리 크지 못하다.¹⁰⁾ 또한 북한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뇌물을 받고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면·지인·의리관계가 두텁게 작용하여 처벌을 모면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남한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되어도 검열원이 한명일 경우는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돈이 있으면 풀려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10)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16.

V. 결론을 대신하여: 남한 영상매체 유통 확산과 북한체제 변화

남한 영상 매체의 유통확산과 인식변화는 김정일 정권과 체제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며, 이러한 인식변화가 가시적인 주민 행동 변화로 나타나 향후 전반적인 북한 사회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남한 영상매체를 보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앞서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환상과 동경을 가졌던 응답자들은 김정일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 자체에 정치적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난 후 친한 사람끼리는 남북한을 서로 비교하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 자신들이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모두 김정일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과 김정일에 대해 불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주위 사람들과 연계하여 행동화 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인 불만과 체제에 대한 반감이 어떻게 외면화 되어 집단화되는가의 여부는 향후 북한체제 변화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남한 영상매체 시청을 통한 인식변화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나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탈에서부터 탈북이라는 북한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부인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양상은 국경지방은 물론 북한 내륙 지역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계층을 망라한 변화라는 점에서 남한 영상매체 유통이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 매개체로서 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매체를 통해 남한 사회와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 직접적인 문화 행동 양식의 변화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은 향후 북한체제 변화를 전망함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이다. 평소 남한 영상매체를 통해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간접적 경험의 축적은 경제난이 지속될 경우 체제변화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촉발할 수 있는 의식적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매체 시청은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는 또다른 요인과 상호 결합할 경우 북한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문화적 수용, 문화접변 등의 영향은 향후 남북한 통합 시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보유입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특정계층에 의한 부의 독점이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면,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은 더욱 강해지고 결국 사회구조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¹¹⁾ 중요한 점은 북한주민들의 이같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변화

11) 이무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의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2호, p. 210.

요구를 외부로 어떻게 표출하고 상호 결속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소셜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학연, 지연, 혈연, 직장동료와는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 및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는 국가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와 산업, 사회와 문화를 통째로 뒤바꾸면서¹²⁾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보 전달도 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제와 감시의 벽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촉점은 선과 선으로 연결되며 접촉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이 북한 사회에서 단순히 대인간 연결을 넘어 연결망을 결속시키는 파급력을 지니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발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12) 김중태, 『소셜네트워크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서울: 한스미디어, 2010), p. 213.

북한에 유입되는 한류의 과거와 현재 진단

주성하 | 탈북자, 동아일보 국제부

.....목차.....

머리말

제1절 남한 문화의 유포

1 남한 가요의 유포

- 1) 1단계-북한 노래인줄 알고 부르던 단계
- 2) 2단계-연변노래로 알거나 몰래 숨어서 부르던 단계
- 3) 3단계-아예 대놓고 부르는 단계
- 4) 4단계-남한 노래가 정부 풍자에 이용되는 단계

2 남한 영화 드라마의 유포

- 1) 외국 영화의 유입
- 2) 한국 영상의 급속한 유입
- 3)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급속한 보급의 조건
- 4) 최근 한국 드라마 보급 속도 주춤

제2절 한국 상품의 유통

1 의복부터 시작된 한국 상품 유입

2 삼성과 LG TV의 사례

3 기타 북한에 흘러가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

4 식품의 경우

머 리 말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경제침체가 깊어지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이 점점 커짐에 따라 한류의 유입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소위 ‘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 밑바탕에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한국 공업품을 사용하고 식품을 사먹는 사람들에게 대해선 부자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한류 흐름에 대해 분석해본다. 드라마, 노래 등 남한 문화의 유포, 한국 가전제품을 포함한 공업품과 식품이 북한에 들어가는 현실을 분야별로 조명하려 한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절 남한 문화의 유포

이 절에선 한국 가요와 드라마의 북한 유입에 대해 조명하려 한다. 남한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한국 인기가요가 북한에 퍼지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약 10년 내 본격화된 일이라면 남한 노래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불렸다. 이 때문에 이 절에선 북한에 남한 노래가 퍼지게 된 과정을 먼저 분석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뒤따라 설명한다.

1. 남한 가요의 유포

1) 1단계-북한 노래인줄 알고 부르던 단계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 자주 위해 한목숨 바친 그대를 나는 못 잊어/ 나의 작은 가슴에 빛을 준 사랑의 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 우리 그대의 원한 씻으려 투쟁에 나서리.’

1980년대 초중반 북한 젊은이들은 이 노래에 빠져있었다. 딱딱한 북한 노래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달콤한 멜로디와 오랜만에 ‘수령님, 장군님’과 같은 단어가 빠져 있는 가사.

이 노래는 대남연락소 산하 ‘칠보산전자악단’에서 한국 노래 ‘사랑의 미로’를 개사(改詞)한 노래였다. 칠보산전자악단은 한국의 인기가요에 ‘태양, 투쟁, 혁명’ 등의 코드를 심어 개사한 뒤 대남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그러나 이런 테이프가 민간에 흘러나와 젊은이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대다수는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대남당국이 심리전을 위해 특별히 따로 만든 노래로 알고 있었다. 이때가 북한에 한국 노래가 보급되기 시작한 1단계였다.

2) 2단계-연변노래로 알거나 몰래 숨어서 부르던 단계

198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이 본격화한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북한에 밀려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친척집에 머무르며 중국 상품을 팔고 그 대신 수산물 등을 사들였다.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연변에 퍼져 있던 한국 노래가 북한에 들어갔다.

‘최진사댁 셋째 딸’ ‘목화밭’과 같은 노래가 대표적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때도 이 노래들이 연변 노래인줄 알고 따라 불렀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노래가 퍼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바위섬’ ‘아침이슬’ ‘노란 셔츠의 사나이’ 등이 대표 유행곡이었다.

심지어 1990년대 중반엔 ‘아침이슬’을 합창으로 부른 군부대도 있었다. 한국 노래의 유행은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후반에 더욱 가속화됐다.

중국에서 몇 년씩 머물며 TV나 노래방 등을 통해 한국 노래를 배웠던 탈북자들이 북송되거나 자의로 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노래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몰래 숨어 부르던 이때가 북한에 한국 노래가 흘러들어간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3단계-아예 대놓고 부르는 단계

3단계는 7·1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발표됐던 2002년경부터 볼 수 있다. 이때를 전후로 북한에 DVD 플레이어 붐이 일고 남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할 것 없이 남한 노래인줄 뻔히 알면서도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송년회에는 ‘바위섬’, 생일축하 파티에선 ‘친구’, 군에 징집돼 가는 기차에선 ‘이등병의 편지’가 빼놓을 수 없는 고정 합창곡이 됐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 노래는 지금 100곡이 훌쩍 넘는다.

한국 노래 유입의 기원을 열었던 ‘사랑의 미로’는 여러 버전으로 개사돼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다.

올 8월 북한에 들어갔던 중국 관광객은 북한 여종업원이 이 노래를 이렇게 고쳐부르는 장면을 찍어왔다. 개사된 내용은 이랬다.

아침이 어디서 오는지 백두에 올라가봤죠
하늘땅을 여는 폭포서 해돋이 보고 알았죠
나의 작은 가슴에 비춰진 해발이여
이 세상 끝에 가도 영원히
우리 장군님 모습 빛나는 해쏜는 백두여
사랑은 어디서 오는지 예 올라 새겨 안았죠
장엄하게 솟은 불덩이 해돋이 보고 알았죠
나의 얼은 가슴에 빛을 준 해발이여

이는 ‘사랑의 미로’의 대외 선전용 버전인 셈이다.

4) 4단계-남한 노래가 정부 풍자에 이용되는 단계

탈북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0월 27일 북한주민들이 '곰 세 마리' 노래를 개사해 3대 세습을 풍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집에 있는 곰 세 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할배곰, 아빠곰, 새끼곰. 할배곰은 똥똥해 아빠곰도 똥똥해 새끼곰은 미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한국 노래 보급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부가 남한 인기곡을 개사해 심리전에 이용한 것이 북한에 한국 노래가 퍼지게 된 시초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북한주민이 남한 인기곡을 개사해 정부를 풍자하기 시작한 것이다. NK지식인연대는 극도로 민감해진 북한 당국이 이 노래의 유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유행된 한국 노래의 시기별 특징		
	대표곡	주민들의 태도
1단계  1980년대 초중반	'사랑의 미로' '바람 바람 바람' 등 한국 인기노래를 대남공작 기관에서 개사한 노래	북한에서 대남용으로 만든 노래인 줄 알았음
2단계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말	'최진사댁 셋째딸' '목화밭' '바위섬' '아침이슬'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등병의 편지' 등	초기엔 연변 노래인 줄 알다가 점차 한국 노래인 줄 알았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숨어서 몰래 부름
3단계  2000년대 초반 ~ 현재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 한국 인기 드라마들의 주제곡이 위주	한국 노래인 줄 다 알면서도 대놓고 부름. 공공장소 합창도 함
4단계  2010년~	'곰 세마리'	한국 노래를 북한 정치 풍자곡으로 개사

2 남한 영화 드라마의 유포

1) 외국 영화의 유포

1단계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당국에서 금지한 외국 영화의 유포로 꼽을 수 있다. 외국 영화가 몰래 유포 된 것은 남한 영화 및 드라마가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즉 당국의 눈을 피해 어떻게 영화를 봐야 하는지 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DVD, CD 플레이어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외국 비디오테이프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돌기 시작했다. 시초는 주로 홍콩 액션 영화들로 이소룡과 성룡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할리우드 영화도 급속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이하드’ ‘타이타닉’과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이다.

김정일이 세계 유명 영화들을 들여와 더빙을 시켜 자신의 영화보관소에 넣은 것만 1만 편 이상이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영화예술인들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테이프들이 복사돼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외국 액션 영화와 노래 테이프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을 휩쓸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몰래 보려면 녹화기나 녹음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사는 집에만 있었다. 다시 말해 외국 문물의 유포는 주로는 부유층에 한정된 것이었다. 참고로 외국 영화의 바람과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바람과는 따로 떼어내 설명하긴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몰래 본다는 점을 비롯한 실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다만 남한 영상은 위험 부담이 훨씬 높다는 차이가 있다.

2) 한국 영상의 급속한 유포

북한 주민들이 남한 TV를 몰래 본 것은 역사가 꽤 오래다. 황해남북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등의 일부 지역에선 한국 방송 전파가 잡힌다.

이들 지역에서는 1980년대부터 밤에 몰래 창문에 이불을 쳐놓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일부 계층에 해당되는 일이며, 더구나 저장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는 잊혀질 수밖에 없다.

또 과거에는 어디 가서 한국 영화를 보았다고 말하거나 또는 말투라도 흉내내면 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도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없었다.

이러던 것이 북한에 남한 영화가 급속히 유입돼 한류가 폭발한 것은 2002~2003년 즈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7월1일 북한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개혁하려는 모양새를 취하자 민심도 술렁거렸다. “우리도 이제 개혁 개방하는 것인가”하는 기대 부푼 마음들은 외국 문물에 대한 동경심을 급속히 끌어올렸고 이는 남한 드라마의 보급을 촉발시켰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는 풀하우스(2004), 천국의 계단(2003), 대장금(2003), 올인(2003), 겨울연가(2002), 가을동화(2002), 야인시대(2003), 불멸의 이순신(2004)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사실 웬만한 드라마는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영화는 주로 조폭영화나 액션물이 많이 들어간다. 조폭마누라, 장군의 아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깡패수업 이런 영화들이 초기 들어가다가 공동경비구역, 쉬리와 같은 첨예한 남북한 사정을 다룬 영화들도 들어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유입되는 속도는 점점 빨리지는데, 북한과 연락을 하는 탈북자들 중에는 몇 주 전에 상영한 남한 드라마를 줄줄 이야기하는 북한 가족에게 깜짝 놀란 사례도 적지 않다.

영화 드라마와 함께 음란물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북한에선 이런 음란물을 소장하고 있으면 한국 드라마를 본 것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그럼에도 성생활이 엄격하게 통제받는 북한 주민들의 욕망을 누를 수 없는 실정이다.

3)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급속한 보급의 조건

2000년대 초반 급속히 보급된 DVD플레이어는 한류를 확산시킨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DVD플레이어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아 요즘에는 북한 도시의 웬만한 가정에는 다 있다.

이전에는 부피가 큰 비디오테이프를 몰래 돌려가면서 보던 북한 주민들이 이때부터는 작은 CD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됐다.

북한 주민들은 CD를 ‘알판’이라고 부른다. CD는 부피가 상당히 작을 뿐 아니라 많은 분량을 담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을 통해 밀수해 들여가기에 편리하다.

장마당의 확산도 불법 동영상 유포를 뒷받침해준 공로자라고 할 수 있다. 장마당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 장마당에서 팔리지 못하는 것은 없다. 한국 드라마 CD도 마찬가지로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고 음란물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복사해 팔면 크게 이윤이 남기 때문에 북한 장마당에는 전문적으로 이를 불법 복제해 파는 사람들이 많다.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당국이 용인하지 않는 동영상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불법거래를 용이하게 만드는 지하시장이 발달했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널리 보급됐으며 기술의 발달로 부피가 작은 영상 저장도구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에는 음성적인 비디오방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집에서 몰래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것이다. 국가가 판매한 CD는 북한돈 환율에 상관없이 0.1달러 정도, 불법CD는 0.2달러 이상, 외국 드라마 시리즈는 0.5달러 정도에 하루 동안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CD도 본판이나, ‘복사알(복사판)’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참고로 최근 북한에서 쌀 1kg은 0.6~0.7달러 가량에 거래된다.

팔리는 CD는 조금 더 비싸다. CD 1장에 0.5달러, DVD 1장에 2.5달러이지만 남한 영상이나 포르노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선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불법 동영상 보급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채팅은 할 수 없지만 동영상 재생과 게임은 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는 DVD플레이어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CD복사를 용이하게 해준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컴퓨터에는 더욱 용량이 작은 저장도구인 USB 사용이 가능하다.

아직은 북한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컴퓨터가 더욱 확산되면 단속에도 잘 걸리지 않는 USB에 담긴 동영상이 컴퓨터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급속히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DVD플레이어, 컴퓨터 단계를 지나 최근 몇 년 안에는 MP3나 MP4, 노트북을 이용한 드라마 시청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4) 최근 한국 드라마 보급 속도 주춤

2010년부터는 한국 드라마 유입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부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국경봉쇄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과 거래하다 단속될 경우 처벌도 예전에 비할 바 없이 강화됐다.

최근 연간 북한에서 남한과 통화하던 전화기들은 급증한 전파탐지기들을 피해 숨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할 수 없지만 느낌상 2009년에 남한과 통화하던 전화기의 절반 이상이 불통된다고 생각된다.

또 국경봉쇄 때문에 밀수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중국을 한번 오가는데 주는 뇌물이 몇 년 전에는 중국돈 100위안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수천 원대로 치솟았다.

이는 밀수로 들어가던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가 그만큼 건네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와 영화의 전성기는 2001년~2008년경으로 볼 수 있으며 현 정권 출범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의 영향은 북한에 유입되는 한류붐까지 영향을 미쳐 역시 크게 냉각시키고 있다.

제2절 한국 상품의 유통

이 절에서는 한국 상품의 북한 유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문화적 동경은 단순히 한국 문화가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것은 영화나 노래보다는 실제로 쓰는 한국산 제품들이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중국산 상품과는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뿐더러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의 최대 동경을 받았던 일본산 제품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이 질이 좋기 때문이다.

1. 의복부터 시작된 한국 상품 유입

북한에 한국 상품들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외화벌이 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중국과 국가의 통제가 많이 약화된 공간을 이용해 거래를 시작하면서 한국 제품들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옷은 상표가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밀수꾼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 한국의 섬유산업이 세계적이라는 소문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시 한국산 옷을 ‘아래동네 것’이라고 불렀다. 이때만 해도 아래동네 것이 일본제품을 의미하는 ‘본산’보다는 비싸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한국 물품이 북한에 밀려들어가면서 북한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서도 한국산의 인기가 일본산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

북한에서 의복류도 비싼 순으로 꼽으라고 하면 일본산과 한국산 피복이 1부류, 동남아산이 2부류, 중국산이 3부류다.

그러나 한국산이나 일본산 옷은 새것이 너무 비싸다.

우리가 상가에서 보는 5만원 옷이라 하면 30달러가 훨씬 넘는데, 이건 북한 주민 4인 가정이 1달 먹고 살 수 있는 거액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중고 옷들이다. 한국이나 일본제 중고 옷들이 태국 등에서 팔리는 것은 봤지만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이렇게 들어간다.

중고 옷은 아파트 단지 밑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서 공짜로 꺼내 가면 된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해진 옷을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옷들은 다 손질하면 한참을 더 입을 수 있다.

장사꾼들은 이중에서 북한에 소화될 만한 옷을 골라서 중국을 통해 들여간다. 유행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나 너무 튀는 옷이 아니면 다 무난하다. 한국에서 많이 입는 청바지는 북한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또 너무 야한 옷, 즉 짧은 치마 이런 것도 안 된다.

최근 북한에서 남한 비디오물들이 유행하면서 남과 북의 옷의 유행 주기가 상당

히 빨리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남한 말투까지 흉내 내는 북한 사람들이 옷이라고 흉내 내지 않을 수 없다. 거리서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벌써 누가 한국 드라마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정도다. 특히 여성들이 더욱 그렇다.

북한에서 일본산이나 한국산 중고 옷은 중국 새 옷보다 훨씬 비싸다.

당연히 몇 번 안 입으면 곧바로 중고가 돼버리는 중국옷과 아무리 빨아도 계속 품 나는 한국산 옷 중에 어느 것이 더 비쌀 지는 뻔한 일이다.

وما다 가격이 틀려서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통화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옷인 경우 한국산 또는 일본산 중고 옷이 중국 새 옷 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한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은 돈 많은 사람은 중고 옷을, 가난한 사람은 중국옷을 사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산 어린이옷들은 정말 인기다.

북한에서 한국산이 인기가 좋다보니 중국에서 한국산 짝퉁옷들도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에는 남한 피복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상표가 자꾸 없어지는 것 때문이다. 공장 직원들은 처음에는 왜 상표를 훔쳐가지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표를 훔쳐다 북한에서 자체 제작한 옷에다 팔면 100원 짜리 옷이 1000원이 된다고 하니 어찌 눈에 핏발을 세우고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2 삼성과 LG TV의 사례

북한 사람들이 삼성은 남한 브랜드인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도 오랜 브랜드라. 회장이 이건희라는 것까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현대 정주영(현대의 경우 정몽헌까지), 삼성 이병철(삼성의 경우 이건희까지)은 북한 사람들에게겐 상식이다.

하지만 집에 들여놓는 가전에 삼성 브랜드가 붙으면 문제는 좀 다르다.

주민들을 못살게 굴어 뇌물을 받으려고 혈안이 된 각종 검열대들이 수시로 민가에 들이닥쳐 트집을 잡는데 삼성 TV가 있으면 참 골치가 아프다.

그런데 LG는 아직 한국 브랜드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다보니 그냥 북한에 상당히 많은 일본 소니 브랜드 비슷하게 인식된다. 혹 트집잡혀도 남조선 것

인줄 모르고 그랬다면서 뇌물을 줌 주면 무마되는 수가 많다.

북한에 삼성이나 엘지 TV는 수량이 흘러들어간다. 가격이 여기서 파는 가격과 별 차이 없다. 500달러 이상. 그래도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아주 극소수 부유층에 해당된다.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이 TV 등록제를 실시했다. 북한의 컬러 TV는 상당수가 일본산인데 등록하면서 다음번에 TV사면 일본이나 중국제가 아닌 북한제를 사라고 압력을 가한다. 일본산이나 중국산 등 외국산을 사면 등록자체를 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하지만 뇌물 좀 먹이면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북한에서 TV를 생산해봐야 중국산 부품 들여와 조립하는 정도이다. 아리랑 축전을 하고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21인치 컬러TV도 사실 중국 창홍 브랜드 TV에 북한 이름만 아리랑으로 붙여놓은 싸구려이다.

TV 수상기 정책 이전에 북한에서 DVD플레이어에 한해서도 허가제를 실시했다. 2005년에 하나전자라는 공장을 차려놓고 북한에서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 DVD플레이어를 만들어 팔았다.

북한에서 DVD플레이어 갖고 있는 집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 북한에서 하나전자 DVD플레이어를 사면 허가해주고 중국산을 사면 허가해주지 않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전자 DVD플레이어가 본질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밀수로 들여오는 중국산 DVD플레이어보다 20~30% 가까이 비싸다는 것. 북한 당국이 등록제를 실시하고 허가권을 이용해 사실상 주민대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다. 하나전자 상품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밀수 DVD플레이어를 사고는 뇌물주고 등록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 '밀수 기기+뇌물'이 30% 비싼 하나전자 기기보다는 나왔기 때문이다.

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가전에선 삼성이 LG를 압도적으로 눌렀다.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분야. 북한에 있는 컴퓨터의 상당수가 삼성 제품인데 이걸 아직까진 북한에서 많이 용인해준다. 디지털카메라는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도 있고 단속에 숨길 수도 있는데 이걸 삼성 브랜드가 매우 인기 좋다. 남조선 삼성 제품하면 북한에서 국적 불명의 LG보단 확실히 낫다는 인식이 있다. 다만 단속이 무서워 집에 떡하니 들여다 놓지 못하는 것이다.

3. 기타 북한에 흘러가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

위의 사례 외에도 북한에 들어가는 한국 상품들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잘 팔리는 옷, 가전제품들이 들어가다가 이후 생활필수품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초창기에는 한국산 레자(장판)가 많이 들어가 인기를 끌었다. 중국산 레자의 3배 이상의 가격에 팔렸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 한국 제품들이 매우 인기가 많다는 사례는 많다.

대북매체인 열린북한방송은 2009년 4월에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남도 평성시의 상차리 고개에 있는 도매시장인 종합시장을 통해 북한의 주요 도시 시장으로 다량의 한국제품이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현재 북한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믹서기, 열풍기(온풍기), 가스렌지, 가스통, 은나노도시락, 가스난로, 고압가마(압력밥솥), 행주, 장갑 등으로 이러한 제품에는 한국산 상표이름이 붙여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시장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샴푸와 린스 등도 평양 고위급 간부 부인을 중심으로 유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서 거래되는 한국 한 회사의 제품인 샴푸와 린스는 470g들이 1개에 중국돈 40~50위안(한국돈 8,000~10,000원)이며 비누는 개당 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 제품의 인기는 다른 품목에서도 나타나 한국산 목걸이(14K)는 개당 150~200 달러, 귀걸이는 개당 70~80달러에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산 향수와 방취제, 자동차 방향제, 냉장고 냄새 탈취제, 화장실 방향제 및 탈취제 등의 생활용품들에 대한 인기도 높다고 소개했다.

본인도 북한 정보원들에게서 한국산 화장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2차례 받은 바 있다. 그들은 “북한 장마당에서 이미 한국 화장품을 구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으나 진짜 한국산인지 알 수 없어 직접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4 식품의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남한 맛을 맛보게 하는 것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한국 식품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것이 초코파이이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북한에 퍼지게 됐다.

한국산 초코파이는 이제는 웬만한 북한 장마당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됐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 쌀 300그램, 또는 옥수수 500그램 가격과 맞먹는다.

또 하나 많이 꼽히는 사례가 라면이다.

한국산 신라면은 2004년 용천폭발 사고 때에도 50만 개나 들어가 평양 암시장에서 대량으로 팔렸는데 지금도 밀수꾼들이 몰래 많이 들여가고 있다.

다른 식품들도 마찬가지. 북한 장마당에서 오래전부터 남한 상품들이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단속 때문에 직접 내다놓고 팔지 못하지만 장마당에 가서 수소문하면 다 찾을 수 있다. 대신 남자가 가서 물어보면 잘 알려주지 않는다.

보안원이 구매자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이 가서 물어보면 잘 대답해준다. 북한엔 여성보안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상품은 상표가 없으면 가치가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상표를 떼고 세관을 통해 들여와선 다시 내부에서 상표를 다는 경우도 많다. 가짜 한국 상표를 붙이는 일도 흔한 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진짜 한국산 상표가 달린 물품은 단속되면 골치가 좀 아프지만, 한국산 가짜 상표를 붙이고 팔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속반에게 사실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 상표를 붙인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면 ‘이따위 짓 왜 하느냐’하는 질책은 받지만 크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요즘 북한 장마당에선 주민들이 한국 제품의 브랜드를 알아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산 오투기 브랜드 사과식초와 양조식초다.

1.8L짜리로 사과식초는 6달러, 양조식초는 5달러 선에서 거래된다.

이 식초들이 진짜 한국에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상표만 만들어 붙였는지는 파는 사람도 잘 모른다. 아무튼 오투기 사과식초가 요즘 인기가 좋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 브랜드의 고추장, 식용유, 밀가루 등도 잘 팔리는 품목이다.

조미료 시장에서도 예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맛내기(미원)을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돈 있는 집들에선 다시다를 사먹는다. 특히 중국산보다 한국산 다시다가 인기이다.

식품들 중에는 중국에서 바라(비포장)로 들여가서 북한에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국산 제품임을 입증하는 포장용기도 중국에서 들여가는데 이렇게 하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자유와 북한판 한류열풍

(부제: 무엇이 그들을 변화하게 하는가)

김태훈 |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1. 기본권으로서의 정보의 자유

가. 표현의 자유, 특히 정보의 자유의 중요성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헌법 제10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헌법 제1조)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유엔총회는 1946년 제1차 회기에서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는 근본적인 인권이고, 유엔이 헌신해야 할 모든 자유의 시금석(touchstone)이다”고 선언했으며¹³⁾, 세계인권선언(UDHR) 제19조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 권리는 …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ICCPR) 제19조도,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북한에서의 정보의 자유

북한 헌법 제67조도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 사이에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제6차 회기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모든 국민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480가지의 신문들이 국가 또는 지방 차원에서 공장, 기업, 대학 등에서 발행·배포되고 있으며, 수백가지의 잡지들이 수십개의 인쇄매체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의견 및 견해를 TV 등의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13) Resolution 59(1), 14 December 1946 (<http://www.un.org/documents/ga/res/1/ares1.htm>).

다.14)

그러나 북한은 외부정보의 차단을 체제유지의 핵심요소로 삼고 지난 60여년 동안 주민감시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시스템, 즉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 주민 상호 고발 등의 감시 제도와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와 같은 처벌 장치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봉쇄하여 왔다. 북한의 라디오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신문은 김정일의 행적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내용,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만을 다룬다.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는 김정일 정권과 체제 유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근래에는 3대세습을 위한 김정은 포함)의 우상화를 목적으로 한 선전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2. 북한 주민의 여론 형성 매체와 현실

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년도 『북한인권백서』에서 탈북자 100명을 상대로 북한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처벌되는 사항, 주민의 신고 절차, 처벌의 실효, 처벌의 정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도 『북한인권백서』에서는 2005년 이후 탈북자 200명(남자 67명, 여자133명)을 상대로 2010년 2월에서 3월까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최근 현황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북한주민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나. 내용

(1) 텔레비전

텔레비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프로그램, 김정일 군부대 현지사찰, 현지 방문, 외국 대통령 방문, 당 정책 관련뉴스, 기록영화 등이 방송 된다고 한다. 주로 조선 중앙TV만 보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ID 013(2010)] 김정일이 인민군 부대를 시찰한 내용이 30분에 한 번 씩 나온다.

[ID 159(2010)] 중국에서 넘어오는 전파를 받아서 한국드라마를 보았다.

[ID 184(2010)] 텔레비전 채널과 관련하여 평양에 3개, 개성에는 2개, 지방은 1개

1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WG.6/6/PRK/1, 27 August 2009. 42항 참조.

채널이 존재하며, 일요일은 오전9시~오후9시, 다른 요일은 오전 9시~오후5시가 방영시간이다. 뉴스와 영화 등 매일 일괄적인 편성이 이루어지고, 일요일에는 뉴스, 영화, 기록영화, 드라마 한 편을 편성해준다.¹⁵⁾

한편 2010년 6월 9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의 기초가 된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8명의 2010년 3월에 탈북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이전에는 텔레비전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아무리 못살아도 집집마다 텔레비전은 다 있었으나, 화폐개혁 이후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고 한다.¹⁶⁾

(2) 라디오

북한의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른 지 오래되어 최근 북한 주민들은 거의 라디오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는 주로 남한 비방 선전, 해외 비방뉴스, 지방 소식, 노래 등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라디오를 듣지만, 최근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라디오를 듣는 문화 자체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D 012(2008)] 라디오로 처벌받은 건 본 적도 없고, 최근에는 다 라디오 안 들어요, 다 씨디로 보고 그러지 라디오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ID 123(2010)] 라디오는 비싸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 본 적이 없다.

[ID 127(2010)] 라디오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¹⁷⁾

그러나 한편, 국내의 공식적인 대북방송은 KBS라디오의 한민족방송인바, 2008년 12월 남한의 탈북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4%가 '북한에서 KBS 한민족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한민족방송 청취 경험자 가운데 71.3%가 '방송이 북한 이탈 결심에 도움이 됐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조사에서도 2006년 이후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RFA 등 외국 방송을 정기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3) 신문

노동신문, 노동청년, 조선인민군 등 여러 신문이 있으며, 중앙기관지에 해당하는

15) 황태윤,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312면 참조.

16) 『화폐개혁 이후 1년』,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10년 11월 1일 발행) 34면 참조.

17)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2-3면 참조.

18) 동아일보 2010. 7. 4.자 참조.

민주조선이라는 신문이 있다고 한다. 각 도별로 도일보가 있으며, 소년신문이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문의 이름만 다를 뿐 그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서 모든 신문은 하나같이 김정일 현지 지도, 모범 기업소 소개, 공로자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광고는 없다고 한다. 신문이 발행되기는 하나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ID 045(2010)]의 답변에 의하면, 북한 내 신문의 80%가량은 담뱃잎을 말아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고, 20%가량은 도배종이로 사용된다고 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신문이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출판물보급소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당간부들이나 당간부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50%정도 빼돌려 잡상인들에게 공급한다고 한다. 잡상인들은 중간에 빼돌린 신문을 담배종이나 도배종이로 판다고 한다.¹⁹⁾

(4) 잡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북한 내 잡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북한 내 잡지는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로동자」, 「시대」지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잡지의 내용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거의 정치선전이라고 한다. 「시대」라는 잡지는 외국, 특히 일본 정세를 많이 다루며, 조총련 등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주된 독자로 한다고 한다. 「시대」는 일반인에게 배포는 되지 않지만, 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살 수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출판물은 전혀 없다. 모든 출판물은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⁰⁾

(5) 인터넷

북한에서 개인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정부, 기업, 대학교 일부 장소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일부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가 없어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터넷은 안 되지만 컴퓨터 하드를 교환하여 영상물 등을 돌려본다고 한다. [ID 200(2010)]은 일반 가정집에는 인터넷이 없고 보안소장 등 간부 집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²¹⁾

(6) VCD, DVD, CD-R

주로 VCD(알판이라고 함), DVD, CD-R 등을 중국을 통해 몰래 들여와 중국에서

19)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3면 참조.

20)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3-4면 참조.

21)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4면 참조.

들어온 소형 재생기나 노트북으로 영상이나 노래를 재생한다고 한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본다는 답변도 있다. 불을 모두 끄고 대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몰래 본다고 한다. 집집마다 DVD 플레이어나 동영상 재생기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보따리 장사들이 국경 지대에서 경비대에 뇌물을 준 뒤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VCD, CD-R, DVD를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 본다. 남한 드라마를 가장 많이 시청한다고 한다. ‘겨울연가’, ‘가을동화’, ‘천국의 계단’, ‘노란 손수건’, ‘올인’등 드라마가 선호되고 있으며, 젊은 층에게는 특히 가요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한다.

[ID 168(2010)] 2006년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여자가 잡혀 왔는데 라남구역 남청진에서 잡혀 온 여자였다. 한국 드라마 보고 잡혀 와서 교화형 2년 받았다. 2007년도에 친구 아내가 집에 비디오가 있는 것이 걸려 북한 돈 150만원 뇌물을 써서 살아남았다.²²⁾

(7) 탈북자 뼈라

탈북자 단체인 기독교북한인연합·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2004년부터 북한으로 임진강 등지에서 뼈라(전단)을 띄워 보내고 있다. 풍선 하나에 전단 몇 장을 매다는 과거 수작업 방식을 크게 개선하여, 풍선 대신 두꺼운 12m짜리 대형 비닐을 쓰고 이 속에 값싼 수소 가스를 채워 넣어 12만원으로 비닐 풍선 하나에 엮서 크기 뼈라는 최대 6만 장, A4 용지 뼈라는 1만 장 가까이 매달아 보낸다. 이민북 기독교북한인연합 대표는 "뼈라를 종이에 써 비닐로 바꿔 무게도 줄이고, 고공에서 종이가 젖는 것도 막았다"고 한다. 이 단체는 2008년 9월엔 뼈라 뭉치에 태엽 장치를 달아 뼈라가 시간차로 떨어지도록 해 살포 범위를 확대했다.²³⁾ 전단 뭉치는 1시간 뒤엔 비무장지대, 3시간 뒤 황해북도 사리원, 5시간 뒤 평양 인근에 각각 떨어지는데²⁴⁾, 1985년 함경도 요덕 수용소에서 그 곳까지 날아온 풍선뼈라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한다.²⁵⁾ 북한의 평양방송은 탈북자 뼈라에 대하여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고, 남북군사회담에서 북측단장은 뼈라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은 탈북자의 대북 뼈라 살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지역 전역으로 뼈라가 광범위하게 뿌려지고 있고, 뼈라살포의 주체가 탈북자로 북한 주민들의 고향사람들이 직접 보낸다는 사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뼈라 내용을 사실이라고 쉽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뼈라 내용 중에는 김정일의 난잡한 사생활을 언급하는 것도 많은데,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군인들에게 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2009년 여름경 남포지역에 대형풍선이 거리에서 터져 대량으로 살포되었는데, 당시

22)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4-5면 참조.

23) 중앙일보 2008. 11. 21.자 참조

24) 중앙일보 2010. 5. 27.자 참조

25) 강철환, 조선일보 2008. 10. 7.자 조선테스크 참조.

북한의 국가보위부가 모든 주민들을 통금조치한 후 빼라를 신속하게 수거하였다고 한다.

[ID 031(2010)] 군대에서는 빼라를 많이 받았어, 평양까지 들어왔어요. 특히 탈북자들이 쓴 빼라는 영향력이 커요.²⁶⁾

3.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 실태

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항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부정적 언급, 북한 정치 제도와 경제 사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남한에 관한 호의적인 언급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말하거나 표현을 할 경우 언제라도 국가안전보위부에 신고되어 처벌받는다.

북한의 배급제도 붕괴에 따른 사회통제기능 마비로 인하여 점차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통제도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북한주민의 생활총화

북한체제에서는 ‘말을 하는 자유’와 ‘보고 듣는 자유’가 없는데 더하여 ‘말을 하지 않을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생활총화”란 자아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북한의 회의방식을 말한다. 주말총화, 분기총화, 연간총화 등이 있다. 전통적인 사회공동생활의 윤리를 붕괴시키고 인간성을 파괴하여 인간개조를 하는 과정이다. 생활총화의 강제성, 불출석시 받게 되는 처벌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ID 014(2010)] 생활총화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다음 총화에서 비판을 받는다.

1990년대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편이다.

[ID 016(2010)] 요즘은 위원장한테 돈 좀 주면 생활총화에 안 나가도 돼요.

[ID 162(2010)] 요즘은 아예 안해요.

[ID 198(2010)] 처벌까지는 아니고 욕을 좀 먹죠. 1990년대랑 비등해요.²⁷⁾

다. 북한에서 다른 나라의 영상물을 보는 경우

북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모든 영상물을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외국의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될 경우, 보통의 경우

26)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20면 참조.

27)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5-6면 참조.

노동단련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심한 경우 사형에 이르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 [ID 005(2010)] 2007년에 18명이 CD-R 복사해서 돌아가면서 보다가 전부 걸려서 공개재판으로 노동교화형 선고받았다. 처음 CD를 돌렸던 주동자는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 [ID 006(2010)] 수성동에서 2005년에 벌어진 일이었다. 특히 돈 좀 번다는 사장 아주머니들이었는데, 그 아주머니 5명이 서로 간에 빌려주며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보다가 걸렸다고 한다. 5명 모두 집결소애가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한다.
- [ID 042(2010)] 2008년도 4월 쯤 일이다. 우리 마을에 사람이 있는데 동무들끼리 한국 영화를 보았다. 그런데 볼 때는 걸리지 않았는데, 동무 중 한 명이 밀고를 해서 보위부 지도원한테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무보수 노동 6개월을 받은 것으로 안다.
- [ID 124(2010)] 2008년도 김책공업대학 학생이 한국 드라마 보다가 온 집안 식구들이 평양에서 황해도로 추방되는 것을 봤어요.
- [ID 137(2010)] 2007년 1월경쯤 최영수(축구감독)아들 최훈이 20살쯤 되는데 한국 영화 ‘악숙’을 보다 보위부에 잡혔는데 나랑, 친구 최영수랑 같이 돈을 찢어서 빼내왔다. 그때 북한돈 100만 원 정도 들었다.
- [ID 143(2010)] 2006년도에 한국 드라마 알판을 서로 바꿔 봤는데, 다른 사람이 보다 걸려서 엄마까지 걸려 들어갔다. 테이프 다 뺏기고 벌금을 내고 마무리 했다.
- [ID 169(2010)] 2007년도 온성 고성농장 작업반장이 중국에서 알판을 들여왔는데 한국의 색정 영호, 액션 영화 130장을 몰래 두만강을 통해서 가져왔다. 비밀리에 알판 영화를 팔아먹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전국 각지에 팔았기 때문에 유포시킨 자, 팔아먹은 자, 15년 형을 받았다.²⁸⁾

라. 주민 상호간 감시 고발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오고 간 말을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고 당국에 고발한다. 그 내용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 수용[ID 073(2010)] 등의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ID 045(2010)]는 신고는 “당 조직에서 급여를 받은 유급일꾼에게만 해야 한다. 다른 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신고를 전파로 본다. 재판 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보위부에 가서 신고하더라도 유급일꾼이나 보위부에서 지정한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고 특이한 답변을 한 바 있다.²⁹⁾

28)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6-8면 참조.

마. 북한 정부가 허용한 뉴스에 관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북한 정부가 허용하여 방송되거나 기사화된 뉴스에 관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ID 001(2010)] 그 나라의 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를 북한의 사정과 비교해서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한다.
- [ID 013(2010)] 뉴스시간에 국제 정치 문제 나온다. 외국 실정에 대한 얘기 주변 사람들이랑 말 많이 한다.
- [ID 014(2010)] 신문이 6페이지 정도 되면, 외국 보도 내용은 몇 글자에 불과하다. 신문도 잘 보지 못할뿐더러, 방송도 볼 시간이 매우 적다. 그러니 외국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 [ID 017(2010)] 자유롭게 말한다는 게 “남한은 항상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내용 등이 TV에 많이 방영된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혁명분자 같은 것으로 높이 이해된다.
- [ID 021(2010)] 북한 정부가 허용하더라도 국내외 정치, 경제에 관련해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야기 하더라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파이가 있을지 모른다. 스파이가 있으면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당국에 신고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함부로 정치, 경제에 대해서 지껄이면 안 된다.
- [ID 029(2010)] 신문에 나온 거 정도는 하는데, 맘 맞는 사람들끼리 체제도 욕하고, 김정일도 욕하고 하지. 법에 접촉되는 말은 절대 안하지.
- [ID 031(2010)] 지금은 자주 이야기해요. 예전하고 달라요.
- [ID 038(2010)] 합법적으로 방영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 [ID 042(2010)] 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내보낸 것이었으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검열을 거쳤겠는가. 당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면 절대 방송되지 않는다.
- [ID 049(2010)]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저 방영된 것은 남한에 대한 나쁜 것만 보여준다. 북한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방영해준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러한 소식은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한 소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29)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18-9면 참조.

[ID 056(2010)] 내용을 이야기 한다면은 한국 것은 경찰들과 인민들이 맞서 싸우는 데모 장면이 주로 방송되는데 한국은 인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회색 옷들만 입는데, 데모하는 학생들 옷이 너무 밝고 이쁜 것이 아닌가 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말로 꺼내선 안 된다.

[ID 065(2010)] 정치적으로 위험한 소재는 주변 사람들끼리도 말 잘 안 한다.

[ID 065(2010)] 허용해서 방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TV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무슨 내용이 방송되었는지도 잘 모른다. 국내외 소식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혹시나 당국과 반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밀고 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3명의 1명 꼴로 스파이들이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한다.

[ID 068(2010)] 잘 보지도 못할뿐더러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뉴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도 안된다. 말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인도 정도의 이야기만 간혹 할 수 있을 뿐이다.

[ID 122(2010)] 방송의 70%, 80%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말하지 다른 것은 안한다. 다른 소식을 알지도 못하니까 말할 것도 없다.

북한 주민끼리 국내외 정치나 경제 뉴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허용되는 대화의 범위나 정도에 관한 북한의 정부의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그런 지침이나 기준은 없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조절한다고 답변하였다.³⁰⁾

바. 중국과 관련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개방정책, 경제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경제 사정을 직접 비교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ID 043(2010)] 중국의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개방 안하느냐는 말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말하는 경우를 본다.

[ID 069(2010)] 중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괜찮다. 중국이 잘 못 살았는데, 중국이 개방한 후에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왜 조선은 개방하지 않는가. 우리도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 한다고 자주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을 대놓

30)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20-322면 참조.

고 말하지는 않는다. 조선에서는 개방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쉬쉬하며 이야기할 뿐 내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ID 073(2010)] 북한과 중국을 내놓고 대비해서는 안 된다. 그저 중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됐는데 북한은 왜 개혁개방 안하냐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북한이 라진-선봉을 개방하고 나서 김정일이 라진-선봉을 개방시켜놓고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중국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인민들의 정신상태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 개혁개방에 대해서 이것이 멋지고, 북한도 빨리 중국처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ID 124(2010)] 그런 건 처벌 안해요. 왜 개방을 통제해 놓았는가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여 달라고까지 말하는데 뭐.....

[ID 154(2010)] 최근에는 그렇게 문제 삼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 20년 전만 해도 북한과 중국을 비교하는 말만 해도 큰 일 났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ID 131(2010)] 중국과 경제를 비교해 노동단련형 6개월 받았던 사람을 알고 있다.³¹⁾

4. 결론

10년 전, 동독을 비롯한 모든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졌음에도 유독 북한만 붕괴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이 다른 공산권 국가에 비해 전례가 없는 정치적 억압과 엄격한 폐쇄 정책으로 주민들의 고립과 무지(無知)를 유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2005년 이후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같은 조사대상 탈북자들은, ① 66명(33%)이 의사표현의 자유 억제를 첫째로 꼽았다. 그 다음 ② 41명(21.5%)이 이동의 자유 억제, ③ 23명(11.5%)이 식량배분 불공정, ④ 18명(9%)이 정치범 수용소의 공포, ⑤ 15명(7.5%)이 자의적 구금, ⑥ 6명(3%)이 종교의 자유 억제, ⑦ 31명(15.5%)이 기타 등을 차례로 들고 있다. 2008년 조사시에는 100명 중 ① 23명이 표현의 자유 억제, ② 12명이 먹고 사는 문제, ③ 11명이 이동·여행의 자유 제한, ④ 5명이 성분 차별, ⑤ 3명이 사회적 감시, ⑥ 3명이 연좌제, ⑦ 2명이 공개처형 등을 차례로 들었다.

표현의 자유 억제가 2008년에 이어 2010년에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되고, 비록 순위는 바뀌었지만 이동의 자유 및 식량권 문제가 계속 둘째, 셋째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거론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31) 위 『2010 북한인권백서』) 322-323면 참조.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억제에 대해서 2010년 조사대상 탈북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인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도 서로 어떤 불만이 있는지 말 못하고[ID 004(2010)], 같은 친구끼리라도 한번 이야기할게 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그 친구가 언짢은 일이 있어 틀어지거나 하는 날이면 친구가 보위부에 가서 신고를 해버리면 바로 감방에 가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회이다. 북한에서는 살얼음판을 걸듯이 말도 진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ID 014(2010), 27, 48, 49], 1970년에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나는 왜 당원이 못 되는가 말을 했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적이 있다 ID 010(2010)]고 말하고 있다.

이번 2010년도 주관식 문항 답변결과에 의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김정일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33명), ② 개방을 해야 한다(30명), ③ 식량난부터 해결해야 한다(27명), ④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15명), ⑤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서 스스로 들고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11명), ⑥ 보위부원 등 국가기관이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9명), ⑦ 장마당을 허용해야 한다(7명), ⑧ 통일이 되어야 한다(6명), ⑨ 이동의 자유 보장(5명), ⑩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야 한다(3명), ⑪ 남한 및 국제사회의 압력(2명) 등의 대답을 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조사대상 100명 중 17명의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교체라고 보았고, 다음으로 15명이 개방, 외부 세계와의 접촉 및 민주화를 들었었다. 탈북자들의 생각이 북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억제가 2008년에 이어 2010년에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되고, 지금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김정일 체제의 전환에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남한정부나 국제사회는 종래의 북한인권 개선요구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활성화 대책 내지 정보제공을 통한 인권의식의 고양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³²⁾

특히 지난 2010년 3월 26일 46명의 군장병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헌장상의 무력사용금지원칙(principle of non use of force)을 위반한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peace)로서 정부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수 있는바, 정부는 이미 그 중 하나로 비군사적인 대응으로서 대북심리전 재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대결 상황에서 보복응징이라는 차원의 군사적 심리전 재개 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외부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외부세계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실들, 국제적인 이슈나 ‘한류’와 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면모를 진솔하게 전달하여 북한주민을 계몽하고 인권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지고

32) 김태훈, 「북한의 인권정책」,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42면-47면 참조.

있는 유희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자신들이 갖는 장점을 중심으로 역할을 극대화해 나간다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도 이 점에 착안하여 상원은 지난 2010. 6. 25., 하원은 같은 달 30일, 각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유아시아방송(RFA)³³⁾의 활동 시한을 철폐하는 국제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북방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33) RFA는 미국 의회가 북한같이 언론 자유가 제한돼 있는 아시아 지역 독재국가의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방송이다.

토론



.....

남한 문화(노래와 영상매체)의 북한 유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윤여상 | 북한인권기록소 소장

○ 본 세미나의 발표문은 세 편인데, 토론자에게 특정하게 지정된 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발표자료 중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남한 문화(영상물 중심- 영화, 드라마, 노래 등)가 북한에 유입되는 방법과 절차, 변화과정,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내용이 포함되어 매우 유익했으며, 남한문화의 북한유입이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어, 북한사회의 향후 변화전망에 큰 도움이 되었다.

○ 강동완 박사의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영상물이 북한에 유입되는 과정을 지역 간, 대인간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발표문에서 사용된 조사자료(탈북자 인터뷰 자료)의 조사방법, 조사규모, 조사대상자 및 조사 시기, 조사의 신뢰 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의 글은 발표자의 기존의 글을 수정, 요약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논문에 사용된 자료가 발표자가 직접 조사한 것인지, 특정 자료에서 인용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 발표문에 소개된 그림이 다른 글에서 인용된 것인지, 발표자가 작성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저자의 다른 연구에서 발표된 것이라면, 출처를 밝혀주고, 저자의 연구결과가 아니라면, 과도한 인용이 될 수 있다.

==> 그림 2-1은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는 지역을 보여주고, 그림 2-2는 남한 영상매체의 지역 간 확산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방법과 조사규모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의 내용이 실제 북한의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지, 제한적인 조사에 의한 것인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2는 지역간 확산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림에서 나타난 확산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상매체가 유입된 것인지, 즉 유통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소수 조사 참여자에 의하여 북한 전체의 실제적인 확산경로와 일치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조사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조사 참여자가 유통시킨 정보의 양을 측정하고, 이것이 전체 유통된 정보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제시하

여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문에서 사례 8, 사례 11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른 연구의 일부분을 소개한 것이라 해도 사례의 번호가 일부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구에서 수행된 사례의 규모와 조사 참여자 규모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발표문은 남한 영상물의 북한유입 경로와 의미, 그리고 영향을 매우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영상물 유입이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행동변화를 초래하여 북한체제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남한 영상물의 총량과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과도하게 남한 영상물의 유입효과를 확대 해석하여 북한사회의 실제적 모습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에 유입되는 남한 영상물의 총체적인 규모와 그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수준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 개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주성하 기자의 발표문은 북한에 유입되는 한국의 가요와 영화, 드라마, 가전제품, 의류와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유입현황과 북한에서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USB와 MP 4 등 새로운 매체의 유입 상황을 소개하고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한국 물품의 유입이 감소추세임을 밝히고 있다. 발표문은 북한내부에 남한의 어떠한 문화상품들이 유입되고 북한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역시 북한시장과 유통경로에서 남한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소개한다면, 북한의 전체적인 ‘한류열풍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김태훈 변호사의 발표문은 북한판 한류열풍을 기본권으로서의 정보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발표문은 국내외 많은 기존 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2010년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과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 억제”가 2010년 백서와 2008년 백서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어느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존의 조사결과들과 국내외 인권단체에서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불법구금 등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갖는 의미를 알고 싶다.

‘북한판 한류열풍’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

김승철 | 북한개혁방송 대표

1. 현상과 역사

북한판 한류열풍에 대한 세 발제자의 토론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세분의 발제는 북한의 한류의 현상과 그 과정, 그리고 한류현상의 사회적 분위기와 영향, 의식과 문화의 변화 등을 잘 짚어냈습니다.

발제를 통해 볼 때 북한의 한류열풍이라고 보는 노래, 상품, 미디어 등의 유입과 소비와 시청 등을 보면 북한이 겉으로는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이면은 크게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성하기자의 북한의 한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한 발제문이나 김정수, 김동완 연구위원의 발제문들은 북한에서 한류열풍은 호기심이나 새로움, 사치스러움을 넘어 북한 사회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서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북한당국의 통제가 심해서 한류가 표면화, 공론화, 공유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재적으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북한주민들이 동경하고 기대하고, 부러워하고 공감하는 한류는 통제가 느슨해지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 표면으로 올라와 북한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거대한 촉매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포르노와 같이 아직은 준비되지 못한 북한 사회의 능력에 넘치는 부정적 미디어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성을 악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1990년대의 대량아사 기간에 가족과 사회의 윤리와 예의가 파괴된 북한에서 포르노와 같은 부정적인 미디어는 향후 북한의 변화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한 세 분의 발제는 지금은 물론이고 향후 북한의 변화와 개혁, 개방 그리고 나아가 남북한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나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거시정책의 틀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의 통일, 삶의 통일, 사회의 통일을 위한 연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어떤 고려를 해야 할지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세 분의 발제를 보면 아직까지 북한에서 한류는 부분적이고 특정 계층적이고, 현

상적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권력층이나 부유계층이 즐기는 한류와 청년층, 일반 주민들이 즐기는 한류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서 한류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연구에서 더 심층적으로 연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한류는 향후 남북한의 문화, 사회적 통일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제시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기되는 것은 북한에서의 한류,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남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시작에서부터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고 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남조선’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괴뢰국가이고 식민지라는 식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그러면서도 북조선보다는 못사는 가난한 나라, 착취계급과 노동자, 농민의 계급으로 양분된 험악한 나라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공식적이고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인식이었고 그 이면에, 북한주민들의 내면에서 남조선은 그 훨씬 이전에 무엇인가 좀 다른, 알지 못할 의심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통일의 상대로서 남조선이라는 나라³⁴⁾가 공적인 인식과 현실적 인식에서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은 1980년 여름부터이다. 당시 남한에서 발생했던 광주 5.18 사태는 북한 TV에서 매일같이 방송되었다. 광주 5.18을 TV로 접한 북한 사람들에게 ‘남조선 혁명’, ‘통일’의 흥분과 기대, 열망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남조선에 대한 ‘혁명적 인식’에 금이 가는 최초의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1970년대 말의 남한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옷차림과 장발, 자유의 외침은 ‘혁명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광주 시가지의 모습과 민중의 옷차림, 교통수단 등은 새로운, 그러나 의혹이 가는 모습이었다. 특히 ‘아까운 버스’를 불태우는 모습은 북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낭비였다.

이후 북한당국은 광주사태 이후 남한의 시위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않았지만 광주 5.18을 계기로 남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뿌리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식인과 대학생들, 연구사들을 위주로 남한의 발전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정보들이 쉬쉬 하며 극도의 보안 속에 유포되었다.

1984년 10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를 싣고 판문점으로 향한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발전된 모습과 옷차림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이 모습들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조선이라는 나라의 모습에 또 한 번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덧붙여 남한에서 풍선을 통해 북한에 투입된 각종 전단과 생필품, 식품들도 북한에 한류의 근원적 뿌리의 한 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4)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이해와 개념에서 ‘나라’라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으로 남조선을 강조하였지, 나라라는 개념의 교육과 교양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국가로 존재하므로 표현상 나라로 한다.

다시 10년이 지난 1995년 북한의 대량아사를 계기로 북한에 남한의 식량을 시작으로 해서 의약품, 생필품, 의류품 등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이 아니었나 봅니다. 또 당시 북한이 남한산 제품에 독약이 들었다면서 통제를 하였지만 그 장벽을 넘은 것도 한류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었나 본다.

2. 한류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내재화

북한 사회에서 한류열풍을 언급함에 있어 세 분의 발제에서 북한의 한류와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의 한류와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북한에서의 한류는 제3국의 한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한류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풍요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발생했다면 북한의 한류는 생존의 노력 과정에서 발생했고 북한의 젊은 층보다는 시장세력³⁵⁾에 의해 형성되었다.

북한에서 한류의 소비는 권력층과 상류층(부유층)의 소비와 일반주민의 소비 등 계층과 권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한류의 소비형태의 분화와 분리는 북한에서 한류가 당국의 통제와 계층과 권력에 의한 생활 방식의 격리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격리와 분화는 당국의 통제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한류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통일 과정에서 한류의 역할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본다.

세분의 발제들에서 아쉬운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판 한류의 사회적 의미와 구조화, 내재화의 특징들을 심층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3.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아주 미흡한 상태에서의 한류열풍이라는 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한류열풍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이라면 본격적으로 사회 저변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세분의 발제를 보면 북한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 문화코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 것으로 보인다. 한류열풍을 다르게 정의한다면 삶의 통일, 사회의 통일, 문화의 통일의 짝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의 한류열풍은 비록 그 현상과 확산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현상이자 과제이고 미래이다.

이와 관련해서 세분의 발제에서 아쉬운 것은 북한의 한류열풍의 현상과 내재화,

35) 여기에서 시장 세력이라 함은 북한 사회의 한 집단, 또는 계층을 말한다. 북한의 시장은 주로 아줌마들이 주체가 되어 장사를 하지만 북한의 장사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 도매와 소매의 모든 과정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장 세력이라 함은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과 그 전후 과정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역자 주.

의식화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겠다. 보다 중요하게는 한류열풍에 대한 나열에서 좀 더 발전시켜 향후 북한에서 한류열풍의 확산과 문화화, 사회화를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보유통과 北 시민사회 發芽의 중요성

손광주 | 데일리NK 편집인

1.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의 시사점

발제문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은 최근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발제문은 “북한 내에 유통되는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고 기능적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유통구조에서 나타난 주목할 변화는 “시장의 확대과정에서 외부정보와 남한 문화가 급속히 유입·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발제문은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가 유입되었고, 이를 통해 남한(아랫 동네)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 되었으며, “시장의 확대는 정보 확산이라는 파급력을 갖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또 북한 지역에서 영상 정보가 유통되는 지역도 공간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확산되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북·중 접경지역, 함경북도 지역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과 시청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연구결과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중 접경지역은 물론 평양,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 내륙(‘안쪽’)을 포함하는 북한 전역에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 “일반 텔레비전의 남한 방송 수신 지역도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는 불과 10년 전에 비해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영상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사회문화적 의식이 변화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행위양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문화적 모방의 단계로 확대되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넘어 행위의 변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제문은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한 응답자(탈북자)들의 의식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데, “첫째, 남한 영상매체를 접하기 이전에 남한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경우이다. 이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처음 접할 때 ‘조작된 것’이

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가도 두세 번 반복된 시청을 통해 남한 영상매체의 내용에 동화되고 의식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는, “남한 영상매체를 접하기 이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과 자본주의에 대한 정보를 접했던 사례들은 남한 영상매체에 대한 감정이입과 의식변화가 앞선 사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변화되고 최종적으로는 탈북을 감행하는 촉매제로 기능”했으며, 특히 “남한 영상매체를 통해 남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발제문은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남한 영상매체를 보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환상과 동경을 가졌던 응답자들은 “김정일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표출”하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물론 남한 드라마나 영화 자체에 정치적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난 후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모두 김정일 때문”이라는 ‘정치적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제문은 “주목할 점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과 김정일에 대해 불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주위 사람들과 연계하여 행동화 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발제문은 “남한 영상매체 시청을 통한 의식변화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탈에서부터 탈북이라는 북한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부인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요한 시사점”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또 지금 이 같은 변화는 “국경지방은 물론 북한 내륙 지역까지 이르고 있으며 계층을 망라한 변화라는 점에서 남한 영상매체 유통이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 매개체로서 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과 상호 결합할 경우 북한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北 내부 시민사회 형성의 중요성

1980년대 말~90년대 초 동유럽 구공산권의 도미노 체제전환에서 중요한 동력은 동유럽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였다. 널리 알려졌지만 오래된 동서독의 방송교류, 외부에서 들여보낸 라디오가 구소련 사회를 비롯한 공산권 주민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물질적 증거로서 나타나 있다. 또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일정 수준 형성돼 있던 시민사회를 어떻게 量的·質的으로 발전시켰는지도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향후 북한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영상정보 등 각종 정보들이 북한 내부에 萌芽의 형태라도 일정 수준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북한 사회 내부에 초기 단계의 시민사회가 형성되려면 북한 주민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외부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이다. '한국 주도-국제사회 협력'의 틀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먼저 나서야 할 이유가 사실상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습독재정권의 평화적 교체→개혁개방 정부 수립 →북 개방정부 + 한국 + 국제사회(미중일러)의 북한 근대화 추진→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이 길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전략의 전선(前線)을 북한내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주인은 김씨 왕조가 아니라 2300만 주민"이라는 주권의식을 갖게 하는 '사상전'이다. 사상전의 과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시장,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북전략을 사상전·정치외교전·경제전 등 전 분야에서 목적의식적, 통일적 수행하면서, 둘째 북한의 외곽(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북한 내부로 전선을 진입시키고, 셋째 계급독재의 피해지역인 함경남북도, 중국과 가까운 평안 남 북도를 중시하고, 넷째 지식계층·청년대학생·시장계층에 집중하며, 다섯째 당·군·정의 하급기관에 체제변화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지역별·계층별·기관별로 김정일 정권 결사옹위 그룹을 소수화해 가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 맹아적 형태라도 시민사회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판 한류열풍, 그 다음은?

안승우 | (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운영위원

활동가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마주하며 이중적인 북한의 모습을 마주하곤 한다. 하나는 '변화하지 않는 북한'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북한'이다.

얼마 전 연평도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한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는 여전히 변치 않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경 지대에서 경비대에 뇌물을 준 뒤 불법적으로' 남한드라마를 들여오는 보따리 장사들(김태훈 발표자), '몇 주 전에 상영한 남한 드라마를 줄줄 이야기하는' 북한 주민들(주성하 발표자), '남한 영상매체에서 배운 남한 말투를 따라하는' 북한청소년들(강동완 발표자)은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 내부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김태훈 발표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사회는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 표현의 자유, 특히 정보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성하 발표자의 서술과 같이 DVD 플레이어의 보급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드라마 및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이 유입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강동완 발표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문화적 모방의 단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북한판 한류열풍'은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짐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북한판 한류열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남한 영상매체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에 대한 강력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남한 영상매체를 들여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수정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고 있다(강동완 발표자)는 현실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변화가 남한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다소 포장되어진 물질적인 부에 대한 동경 혹은 환상, 그리고 이로 인한 옷차림, 헤어스타일, 말투 등의 외면적인 모방에 그친다면 이는 남한사회에 대한 또 다른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영상매체에서 비춰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동경은 지역·계층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부의 추구를 일깨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인권 및 민주주의를 내

용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가 북한사회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떨칠 수 없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북한판 한류열풍’의 주체에 관한 질문이 대두된다. 주성하 발표자, 강동완 발표자의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남한 영상매체는 북한 주민에 의해 북·중 국경에서 밀수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친지방문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들의 지역 간 유통구조, 시장 및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대인간 유통구조를 통해 남한 영상매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한류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NGO들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판 한류열풍’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남한사람들과 남한 내 NGO, 정부의 주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주제로 하여 UCC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인권 및 민주주의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위험부담을 감수해서라도 기존의 네트워크 활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북한 내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주체의 영상매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가 또 다른 주체가 된 다양한 형식과 구성의 콘텐츠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판 한류열풍’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들고자 한다. 한 사회의 문화적 현상에는 사회·경제·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틀에 넣어 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문화야말로 그 시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변화양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북한판 한류열풍’ 또한 단순한 문화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사회 내부의 한류열풍을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요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모방하고 싶은 우월한 문화에 대한 욕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표현·정보의 자유 등을 추구하는 보편적 인간성의 자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실제로 신변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의 영상매체를 시청하며, 이러한 매체들이 탈북 결심의 중요한 동인이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증언을 접하면서 분명 ‘북한판 한류열풍’은 기타 아시아의 한류열풍과는 매우 다른 속성을 띄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북한이 변화 가능한가?”라는 남한사람들의 질문에 토론자는 “북한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라고 답하곤 한다. 물론 북한 당국의 태도는 변함없지만 한류열풍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북한은 이미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당면하는 근본적·원론적인 문제인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 개개인의 변화를 넘어, 이들의 의식변화 및 역량을 결속하여 북한 사회의 총체적·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늘 가슴을 짓누르는 난

해한 화두로 다가온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북한판 한류열풍’이 북한 당국마저 긴장시킬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된 변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한류 열풍이 한 때의 ‘흐름(流)’이 아닌 북한 사회에 대한 내적 성찰 및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내 한류열풍에 대한 현상적 접근을 넘어 한류열풍 그 다음의 변화열풍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 접근, 즉 현 한류열풍을 활용한 또 다른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후원 약정서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약칭 : 성통만사)’은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전략 연구 및 북한관련 주요 이슈 기사화,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남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통만사’가 위와 같은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정기적으로 ‘성통만사’의 소식과 활동 내용을 알려드리며, ‘성통만사’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남/여)
전화번호	(집) (휴대폰)	E - mail	
주소			
약정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기타 ()		
납부방법	☐ 자동이체 ☐ 계좌이체 ☐ 직접납부 ☐ 기타 () * 현재 '성통만사'는 비영리단체로서 납부영수증은 발급가능하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의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 (자유롭게 기재)			

위의 본인은 성통만사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후원을 약속드립니다.

* 작성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며, 수집한 정보는 성통만사의 소식 및 행사 알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약정서에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써 정보이용과 보호정책 수락과 동의를 대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 자원봉사자 모집 ★

성공적인 통일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통만사로 연락주세요.

- 분야 : 인턴, 1:1북한이탈주민 과외, 번역, 행사지원 등

전 화: 02-6497-5035, 팩스: 02-6497-5037, 이메일: pscore@pscore.org

2010년 12월 10일 <북한판 한류열풍 -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하였는가> 자료집

발 행 인 : (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발 행 처 : (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고유번호 : 117-82-04692

주 소 : 서울시 목1동 406-216 미정빌딩 3층

디 자 인 : (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후원계좌 : 신한은행 / 100-023-677055 / 예금주 (사)성통만사(PSCORE)



Copyright by PSCORE.org

PSCORE E-mail : pscore@pscore.org

Tel : 02) 6497-5035, 5770

Fax : 02) 6497-5037

Copyright by PSCORE all rights reserved.

※ 본 인쇄물은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